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 병수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서 서체를 공부했고 그것이 훗날 애플 컴퓨터의 이름다운 활자를 만드는데 밀려들어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 그는 서체 공부와 컴퓨터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핵심의 지식은 놀랍게도 훗날 애플 컴퓨터회사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처럼 혁신은 기존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의 시도와 노력에서 생긴다. 따라서 혁신은 대부분 과거의 틀에 깊이마는 다수의 집단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히 추구하는 소수의 집단에 의해 성공적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정보와 생각을 받아드리려는 태도는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하다. 기존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고집하면 정체된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역동적인 국제화 사회를 헤쳐가는 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의 대학들도 이런 점을 생각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 대학들이 역사적으로 차

별 대우를 받았던 흑인들에게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다양성(diversity)의 문제를 다뤘지만 근래에는 다양한 배경(인종, 성별, 소득, 종교 등 여러 측면)과 사고 방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것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

다양성은 왜 필요한가

는 사회환경을 반영해서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의 백인 비율은 24.7%, 57.6%에 그쳤고, 또한 2050년에 이르면 백인의 비율은 미국 전체인구의 반이 안 되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국가간 직접투자, 교역 증대, 고용시장의 국제화로 미국 학생들은 전세대에 비하여 자주 외국문화와 접촉하고, 외국인과 공동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 교육은 미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화는 항상 환영을 받는 것

은 아니다. 대학교수들은 수업 중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도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백인이 대부분인 대학이나 교수가 종신 계약(테뉴어)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자기와 다른 사고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나 불편함이다. 멀진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가슴이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다. 정치인들은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들의 선명성과 위대함 만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매스미디어가 다양한 후보와 그들의 생각을 비교 분석하는 교육의 광장을, 또한 여러 의견이 교류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제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독자 자신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복수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 방식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치후보자의 선거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현명하게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호감이 가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지는 양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가 무엇이고 이것을 정치지도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려면 기준의 관념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견해에 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과 상반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접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곰곰이 타인의 생각을 읊어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자신에게 편한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좋은 애이 입에 쓴 것처럼 우리는 입에 꽂 맞는 것만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美 엘론대 언론정보학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김 수완

당뇨환자, 각별히 돌보세요

생기며, 빠가 약해지고,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며, 신경 손상 등이 나타난다.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길 하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만성신부전에 이르게 돼, 투석이나 신장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다.

만성신장병은 신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신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만성신장병의 3대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구강체신염이다.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꼴로 만성신장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석을 해야 하는 말기신부전 환자 2명 중 1명은 당뇨병이 원인이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잘 하지 못할 경우 고혈당은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키며, 신장은 혈관으로 이뤄진 장기이므로 손상을 받게 된다. 신장이 손상되면 가장 먼저 미세

알부민뇨가 발생하게 되는데, 미세알부민뇨는 말 그대로 소량의 알부민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신장 손상 최초의 징후일 뿐 아니라 나중에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견하는 중요 소견이다. 그 후 콩팥 손상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단백뇨가 나타나고, 단백뇨가 점점 심해지면서 부종이 발생하고,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며, 동시에 콩팥 기능이 서서히 악화되면서 결국은 말기신부전 상태가 될 수 있다. 말기신부전 상태가 되면 구역질, 구토, 식욕 부진 등과 같은 요독증세가 심해진다.

당뇨병 환자가 신장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우선 철저한 혈당 조절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혈압은 130/80 mmHg 이하로 엄격한 조절이 필요하다.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식이조절 및 고지혈증약의 복용이 필요하며, 금연과 적절한 운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비만한 경우 혈압 조절이 필요하다.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식이조절 및 고지혈증약의 복용이 필요하며, 금연과 적절한 운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비만한 경우 혈압 조절이 필요하다.

<전남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신장은 젤 갈색의 완두콩 모양으로 대략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우리 몸속에서 척추를 사이에 두고 등쪽에 2개가 서로 맞은편에 놓여있는 장기이다.

신장은 자동차 연료 필터 또는 부엌 싱크대의 찌꺼기 제거망처럼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건강한 뼈와 적혈구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수분 및 전해질 조절,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혈압이 올라가거나 빙혈이

기고



황 병화

9·11 10년, 다문화 갈등 미리 막자

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최근에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해 온 서구 선진국들에서 연이어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테러 사건들이 발생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서구 사회는 우리와 달리 다민족·다인종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적·문화적·종교적 갈등과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다문화·다인종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나 분열을 겪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테러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서

구 사회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10년 기준으로 120만 명을 돌파하였다. 광주·전남 지역에도 무슬림과 아시아계 이주민을 포함한 결혼이민자의 숫자가 1만 1300여 명에 달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1만 3400여 명을 상회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연착륙과 다문화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서로의 다른을 인정하며 손을 내밀어 따스함을 베풀고 인정으로 감싸는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의 도시로 상징되는 광주·전남은 다문화가정과 그 세들에게 모범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헤아리고 함께 화합하며 포용하고 이해하는 선도 지역으로 나아갈 때 우리 지역의 기본 정신인 평화와 인권과 화합도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다문화 공동체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다문화사회는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광주·전남은 그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우리 모두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을 담은 성숙한 시민정신을 구현한다면 이들도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조선대 이립아 교수>

소년들에게는 ‘아니면 말고’식의 사고방식을 익힐 줄 알면서 “어차피 확인 안 되는 것이라니 막말해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 불감증도 키워주게 된다.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예의가 아니며 매너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자칫 특정 개인의 인격과 도덕 불감증도 키워주게 된다.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벌써부터 14대 총선 불·탈법 난무해서야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과열·흔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도 내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추석 명절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운이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13건에 이른다. 광주시 선거위는 최근 공산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3 건을 적발했다.

전남도 선거위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한 B씨 등 9건을 적발, 이 가운데 1건을 수사 의뢰하고 8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지역별로는 무안군과 목포, 순천, 광양이 각각 1건씩이고, 영광 2건, 영광군 3건 등이라고 한다.

선거가 7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불·탈법이 자행되면 선거는 불가피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정치꾼’이 아니라 유능한 ‘일꾼’을 뽑아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바가 아닌가. 따라서 유권자들은 선거의 감시로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고발하는 의지마저 보여야 한다.

내년 총선은 대선과 함께 향후 4년간 지역이 전진하느냐, 뒤보하느냐의 결정적 역할을하게 된다. 유권자의 깨끗한 선거의 의지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원비가 이처럼 적다는 것은 교육환경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투자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자체체가 교육투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 자립도 낮고 세수(稅收)가 적은 자체체로서는 실제로 내놓을 돈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광주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교육지원 경비는 뛰어넘어야 한다.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은 전적으로 자체체의 지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다. 경제 기반이 취약한 광주가 교육마저 후진성을 더해갈 정도다.

자체체의 교육지원비는 금식시설과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는 돈이다. 따라서 광주의 교육

無等 鼓

세부서 1일 평균 민원봉사실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비단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씨와 김씨의 소속사는 뒤늦게 ‘주정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결코나마 경찰이나 경찰, 국세청은 여전히 권리기관으로 불린다.

미국에선 국민들이 가장 무서운 (?) 정부기관이 연방수사국이나 경찰, 국세청이라고 한다. 영화 ‘블레이드’ 시리즈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웨슬리 스나이프스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 3억 8000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플로리다 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니컬러스 케이지도 자신의 영화제작사를 통해 개인 경비를 처리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과 벌금을 부과 받았다.

‘국민 MC’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인 강호동씨와 ‘미녀는 괴로워’로 스타덤에 오른 김아중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탈루로 수억 원의 주정금을 부과 받았다. 강씨는 지난 2009년, 김씨는 2007년 납세자의 날에 대수의 소시민들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탈세와 연예인



개인 경비를 처리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과 벌금을 부과 받았다.

대수의 소시민들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회장 金鐘宅	사장 朴承浩	부사장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전화 062-227-9600	팩스 062-227-9600	광고문의 062-227-9600
면접부 2200-649</			